

## 목회자가 경험한 찬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raise Which Pastors Have Experienced

이미아 (Mia Lee)\*\*

조희연 (Huiyeon Jo)\*\*\*

문소영 (Soyoung Moon)\*\*\*\*

#### ABSTRACT

Praise is music that exalts, praises, and glorifies God, and has spiritual strength and healing power.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how the pastor's experiences in praise and its meaning through the Colaizzi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ata collection began on February 14, 2022, and six pastors with experience in the praise ministry were purposely sampl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ducted through man-to-man in-depth interviews and additional interviews. Results consisted of 31 topics, 12 subject collections, and 4 categories. The four categories derived are the perception of identity as a saint, the promotion of the pastor's sense of mission, the awakening of worship, and the reinforcement of community. Through the results,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at praise has a close influence on the lives and worship of pastors and saints, and that it plays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in individual internal, external, and spiritual areas, and churches, communities, and worshi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epared an empirical basis for the value of praise by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pastors' vivid experiences. In addition, it is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have discernment from a biblical perspective so that the songs of praise that the members prefer and sympathize with can be properly applied to worship and personal life.

**Key words:** pastor, songs of praise, hymn, Colaizzi, phenomenological study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8일 최종수정, 9월 8일 게재확정

\*\* 명지대학교(Myongji University)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객원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mia1023@hanmail.net

\*\*\* 명지대학교(Myongji University)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박사수료,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soul7575@empas.com

\*\*\*\* 명지대학교(Myongji University)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부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symoon@mju.ac.kr

## I. 들어가기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라는 전도서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염평안의 찬양곡 가사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내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네.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중략) 그러니 이제 날 내버려 두어라. 난 그것을 알 재간이 없으니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이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을 언급하며(전 2:1, 11, 17, 15-16), 인간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심정연, 2020).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제의적 행위로 노래나 춤, 그림, 글 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곡조를 붙여 노래로 부르는 찬송은 대표적인 찬양으로 예배에서 사용된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사 43:21)”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찬양으로 규정하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교회음악을 찬양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찬양은 시편이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저자의 고백에 곡조를 붙여 노래로 부른 것이다. 시편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름, 속성, 성품, 구원, 베푸신 은혜, 인도하심 등이 있다. 시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찬양은 예배자가 찬양을 통해 마음의 기쁨을 얻고(시 105:2-3), 마음이 치유되고(삼상 16:23),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대하 20:22-23)를 경험한다. 또한, 고난을 이겨낼 힘을 받고(벧전 1:3-7),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며(골 2:26), 두려움을 몰아내고(시 56:4)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시 40:3) 한다(정은주, 2004). 음악으로 표현하는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에는 영적인 힘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김도수, 2014).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 목회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배 찬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예배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직무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도들에게 올바른 예배관과 찬양의 의미, 그리고 찬양의 기능이 무엇인지 교육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찬양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음악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배음악 선곡, 찬양 인도, 교회에 필요한 음악인의 고용, 악기 구매까지 모든 사역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은희, 2021).

목회자들은 많은 예배와 상담, 행정 업무 등을 감당하며 음악감독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때가 있어 목회자는 찬양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많을 것은 자명하다.

목회자와 찬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은희(2021)는 목회자 후보생들의 찬송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며 한국교회 예배 갱신을 위해서 목회자는 예배에 대한 이해와 예배 찬송의 영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으며, 곽희중(2021)은 한국교회의 음악 목회가 성경적 원리에 의해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도수(2014)는 현대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찬양의 개념적인 문제점과 오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며, 음악은 찬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람을 위한 말씀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재송(2015)은 교육적 관점에서 찬송가 교육을 강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찬송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약화 되고 있기에 찬송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종훈(2022)은 음악은 현대 예배자들의 예배 참여 방식과 신앙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배 갱신에 대해서는 예배자들의 적극적이고 전인적인 참여를 제시하기 위한 목회적 노력이 지속해서 요구된다고 했다. 이처럼 찬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제언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본 연구자는 실제 목회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찬양의 기능적, 치유적, 교육적 역할들이 개인의 삶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시대와 문화가 변화함에 따른 찬양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어떠한지를 Colaizzi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Colaizzi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기술이 가능하며,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써 찬양의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찬양에 관해서 목회자의 경험은 어떠한지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분석하고 기술함으로써 찬양이 현재 우리의 삶과 예배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목회자의 찬양에 관한 경험과 그 의미는 어떠한가?”이다.

## II. 교회음악으로서의 찬양

### 1. 찬양의 개념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속성, 성품, 역사하심, 말씀이 가사가 되어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찬양은 마음의 기쁨을 얻고(시 105:2-3), 마음을 치료하고(삼상 16:23),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대하 20:22-23)를 경험하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받으며(벧전 1:3-7),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골2:26), 두려움을 몰아내며(시 56:4)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시 40:3) 한다(정은주, 2004).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에는 영적인 힘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김도수, 2014).

찬양은 교회음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음악을 지칭한다. 교회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음악으로 예배를 비롯한 교육, 전도, 교제, 봉사 등에 사용된다. 교회음악은 성경의 본질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향한 소통과 기능으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찬양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예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교육, 전도, 친교에도 사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찬양은 성경의 본질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과의 소통기능으로도 사용된다. 성도들에게는 ‘예배 중심’으로 사용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문화를 통한 선교’로 사용된다(곽희중, 2021).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음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 음악, 믿음 이 세 가지는 기적이고 방황하는 영혼에는 위로와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 지혜, 선하심, 정의로우심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우형천, 2004).

## 2. 찬양의 특성

### 1) 성경의 진리가 담긴 곡조

성경적 진리가 담긴 찬양은 말씀 그대로를 활용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 김준범(2004)은 가장 좋은 방안 중 한 가지는 성경의 시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편 찬송은 지난 19-20세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발전해 왔으며 국가, 언어, 문화, 교단을 초월하여 예배 찬송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배음악도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의 경우 예배음악에서 고전적인 찬송가를 사용했지만 20세기 이후 현대음악과 즉흥적으로 작사 된 가사들이 여과 없이 찬양으로 만들어졌고, 예배음악으로 사용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성적 언어와 화려한 화성, 강렬한 리듬으로 이루어진 곡을 중심으로 예배음악의 주(主)가 되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찬송가들과 시편 찬송이 밀려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찬양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많은 찬양사역자와 찬양 예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찬송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시간 사랑한 찬송이며 영감으로 된 찬송이기에, 시편 찬양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보급하여 한국교회 예배 찬양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또한, 찬송가에는 새롭게 발견하여 목상해 볼 만한 풍성하고 소중한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다. 요즘 대부분의 경배 음악보다 오히려 찬송가에서 훨씬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 부흥기에 태어난 찬송가를 부르고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과거의 교회와 연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는 큰 의미가 있다. 요즘 찬양곡들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지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채워주어야 할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한 찬송가와 시편 찬송과 같은 말씀 찬양의 유익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교회 예배 찬양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시간 지키며 사랑해 온 시편 찬양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 찬양이 예배에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다. 목회자는 찬양의 가사에서 성경의 진리,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신앙의 핵심들을 찾아내고 의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와 성도들이 찬양을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사명이 있다.

## 2) 공감적 기능

찬양은 공감적 기능의 특성을 내재한다. 찬양은 곡 자체와 그 찬양을 만든 작곡가와 일체 시 되는 특성이 있다. 음악이 작곡가의 인격과 삶을 반영한다면 그 음악이 작곡가를 대변하며 동일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에 하나님과 개인적이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에 관한 고백이 작곡가의 삶에 존재한다면, 작곡가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감동이 고스란히 그의 찬양곡에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찬양은 작곡가 특유의 인간성이 반영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안성섭, 2003).

찬양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감적 기능을 내재한다. 찬양의 언어는 말씀의 계시가 경험적인 계시를 통해 내재화되어 가사로 쓰인 것이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듯이 찬양 가사도 성령의 감화로 쓰였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은 작사가가 느낀 감동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감동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찬양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는 일체감을 경험하는 집단 음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찬양은 개인적인 자기표현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표현 방법이다. 성도들은 수동적인 강론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르는 능동적인 찬양을 통해 훨씬 강력한 신앙적 감화력을 얻기도 한다(안성섭, 2003).

### 3) 교육적 기능

찬양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교육적 기능이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신앙교육 때문이었다. 신앙의 전승이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나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도 복음이라는 진리를 통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교육한다(김보경, 2016). 교회의 기능 중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하재송, 2015).

찬양의 교육적 기능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찬양에는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기능이 있다. 리프블래드(Leafblad)는 유년기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반복해서 듣고 부르는 노래와 찬송가에서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된다고 했다. 월거무스(Wohlgemuth)도 음악은 신앙교육을 돕는 가능성이 있고, 교회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에 대한 교리들, 그리고 삶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들에 대해서 음악을 통해 배웠다고 한다(김경진, 2013).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시편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였고, 대대로 그것들을 노래했으며, 후손들 역시 자신들의 마음과 신앙을 시편을 통해서 나타냈다(하재송, 2015).

둘째, 찬양에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돕는 기능이 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구원론적 관점에서 성화(sanctification) 과정이라고 한다. 조헨슨(Johansson, 1992)은 찬양의 목적은 성도의 성숙이라고 규정하였고, 찬양은 성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 중에서 하나라고 하였다.

셋째, 찬양에는 기독교적인 삶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다. 찬양은 성도의 삶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리프블래드(Leafblad)는 찬양에는 경건한 태도와 소망을 형성할 힘이 있다고 했으며, 찬양은 성도의 삶의 실천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찬양을 부를 때 성도들은 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 권고받는다(김경진, 2013). 이러한 변화들은 음악 자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찬양이 담고 있는 내용, 즉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다.

### 4) 치유적 기능

성경에는 음악과 관련된 많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치유를 위해 음악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음악으로서의 찬양에는 치유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Olaniyan, 2013).

음악 치유는 보통 네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다. 첫째, 음악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한 불안을 완화시켜주며 자유롭게 해준다. 둘째, 음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이완시켜주며 완화시켜준

다. 셋째, 음악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 넷째, 음악은 병리학적인 상실의 슬픔이나 무거운 짐을 완화시켜준다(Meremi, 1997).

성경에서 나타난 음악 치유의 예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다윗의 음악으로 낮게 하는 경우(삼상 16:14-23)와 다윗왕과 언약궤 사건(대상 15장)을 들 수 있다. 사무엘상 16장 14-2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댈 때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선악의 문제, 악한 영의 정체 그리고 사울 왕의 고통 해결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유명복, 2016). 다윗의 음악은 사울이 겪었던 심한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육체적 이완을 가져올 만큼 강력했으며, 악한 영이 떠나게 한 것은, 음악의 힘이다. 또 한 가지 예는 다윗의 언약궤 사건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었고, 이것을 목도한 다윗은 크게 실망하고 두려워했다(삼하 6:9).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언약궤를 모셔올 때, 노래하는 자,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음악에 맞춰 언약궤를 가져왔으며,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 이에 대해 음악을 통해 다윗왕이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Alude & Ekewenu, 2009).

성경에 나타난 음악 치유의 예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멜로디와 화성 악기는 심신증을 치유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으며, 주요 악기는 수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트럼펫과 타악기는 두려움과 걱정을 떨치기 위해 사용되었다. 셋째, 노래는 긴장, 정서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Alude & Ekewenu, 2009).

### III.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찬양에 관한 목회자의 경험과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Colaizzi(1978)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현상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주관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행동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하는 철학의 한 학파로서, 람베르트(Lambert), 칸트(Kant), 헤겔(Hegel, 후설(Husserl)과 같은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Omery, 1993).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Colaizzi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개인의 체험 중 공통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참여자 공통경험의 보편적 본질에 초점을 둔다. 또한,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험의 본질은 주제로, 경험의 구조는 주제 모음으로 도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Colaizzi 현상학적 연구는 목회자가 경험한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기술이 가능하며,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조흥식 외, 2021).

##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목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찬양 사역의 경험이 있고, 찬양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이들에게 또 다른 목회자를 소개받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사역 경력은 교단에서 정식으로 시취를 받고 전도사로 사역한 기간을 포함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 기간 전체를 포함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와 목적 및 진행 과정, 익명성 보장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들로 최종 6인을 선정하였다. 연구 윤리에 따라 모든 인터뷰 내용이 녹취될 것과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 1’은 현재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되었으며, 28년의 사역 경력 중 찬양과 관련한 사역은 15년 정도 된다. 특별히 개척하기 직전 교회에서 찬양 담당으로 부임을 해서 주 10회 정도의 예배 인도를 2년 정도 하면서 찬양 사역이 기계적이고 인위적으로 되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다양한 예배 인도 방식에 대한 힘든 훈련을 통해 1년에 5kg의 체중이 감소한 적도 있다. 이후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중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고 계획하던 목회 방향성을 내려놓는 계기가 있었으며, 찬양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현재 목회하는 성도들과 나누며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예배와 목회를 하고 있다.

‘참여자 2’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었고, 중학교 시절 찬양 선교단체에서 다양한 악기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드럼 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1년 먼저 시작한 사람을 한두 달 만에 따라잡을 정도로 재능이 있었다. 이후 찬양 목회를 위해 신학교로 진학하였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실용 음악 전공을 준비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교회 사역에 비전을 갖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16년의 목회경력이 모두 찬양과 관련한 사역이었으며, 가장 힘들었던 학창 시절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참여자 3’은 스무 살 때부터 어린이 찬양 사역을 시작해서 현재 찬양 사역 경력이 20년이고, 여기에는 15년의 일반 사역 경력이 포함된다. ‘참여자 3’은 어린이 찬양 인도뿐 아니라 어린이 찬양 작곡 및 제작 경험이 있으며, 이후 청소년 찬양 인도와 장년부 찬양 인도까지 사역 범위가 넓어졌다. 특별한 경험으로는 직접 작곡한 찬양 선율에 성경 구절 그대로를 적용했을 때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참여자 4’는 사역 경력이 12년 된 부교역자다. ‘참여자 4’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마다 다른 찬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찬양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매일 새벽예배 시간에 들던 찬양 연주곡을 통해서 답이 아닌 과정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 다시 목회의 소명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 5’는 지금까지 23년의 사역 경험 안에 찬양 사역이 포함된다. 전도사이면서 사모인 참여자는 다양한 형태의 찬양 사역 경험이 있으며, 그중에는 어린이 찬양 작사, 작곡, 율동 제작 및 음원, 영상 제작에 관련한 디렉터 경험이 있다. ‘참여자 5’는 어린 시절부터 하교 후 늘 교회에 들러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행복이고 위로였으며,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찬양이라고 했다.

‘참여자 6’은 이른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으며 일반 사역과 찬양 사역을 병행하던 중 최근 3년 동안은 찬양만 전담으로 사역 중이다. 찬양 싱글앨범 발매 경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에서 찬양 인도 경험도 있다. ‘참여자 6’에 의하면 찬양은 내 입술의 노래로,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 삶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기능이라고 한다. 최근 온 가족이 코로나 19에 걸려 한 달 정도 투병 생활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만 했는데, 자신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을 선곡하여 성도들과 함께 부르며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참여자 | 성별 | 나이 | 직분  | 사역경력 | 사역분야      | 학력      |
|-----|----|----|-----|------|-----------|---------|
| 1   | 남  | 49 | 목사  | 28년  | 담임목회      | M.Div   |
| 2   | 남  | 39 | 목사  | 16년  | 청소년부, 찬양팀 | M.Div   |
| 3   | 여  | 40 | 전도사 | 20년  | 차세대 사역    | M.Div   |
| 4   | 남  | 37 | 목사  | 12년  | 청년부, 교구   | Th.M    |
| 5   | 여  | 43 | 전도사 | 23년  | 어린이부      | MA      |
| 6   | 남  | 37 | 전도사 | 15년  | 청년부, 예배찬양 | M.Div재학 |

###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들과 1:1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2022년

2월 14일부터 시작하였고 개인별로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소요 시간은 1회당 약 60~90분 정도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졌고, 분석 중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추가 면담을 종료하였다. 연구 절차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선행연구 고찰,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찬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참여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찬양 사역과 관련한 목회 경험은 어떠한가요?
- 3) 찬양을 통한 개인 내적인 경험은 어떠한가요?
- 4) 찬양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찬양에 관한 목회자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Colaizzi의 프로토콜 분석 절차를 따랐다. 이 방법은 하나의 개념 혹은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개인의 공통적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연구자가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한 채 기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연구자는 분석 절차에 따라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필수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였다. 둘째, 찬양에 관한 경험과 직접 연관된 문장이나 구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이나 반복되는 진술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진술을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고, 맥락 안에 내포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여 연구자의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넷째, 유사한 의미들을 통합하고 분류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 모음을 구성한 후 주제 모음들을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주제 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여섯째, 찬양에 관한 경험을 범주, 주제 모음, 주제로 진술하였다.

#### 5.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는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고 충실하게 해석하고자 면담 즉시 자료를 듣고 여러 차례 읽어 본질적 의미를 추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본 연구가 적용성

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연구 참여자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지를 논의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 심층 면담 방법, 과정, 자료수집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의도적인 문헌 고찰을 피하고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안에서 다양한 관점의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의미와 본질을 추출하는 분석과정에서는 편견을 배제하고 판단중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자 간 토론 중에도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과 의사소통으로 면담 후에 대상자가 기술한 내용을 여러 차례 읽고 의미를 끌어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 주제 모음, 범주 용어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목회자 1인과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의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연구의 분석 도구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론 과목을 수강하여 현상학 연구에 관한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질적 연구 소모임을 통해 연구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에 대해 살피고 점검하는 것을 체득하였다.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과정을 수행했던 경험에 의한 다양한 시행착오 및 노하우에 따라 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Colaizzi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220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로부터 31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12개 주제 모음, 4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4가지의 범주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인식’, ‘목회자의 소명감 고취’, ‘예배 의식의 각성’, ‘공동체성의 강화’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 1. 성도로서의 정체성 인식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자들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 참여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해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며 찬양의 힘이 발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범주는 ‘치유와 긍정성 회복’, ‘입의 복록’, ‘하나님 께로 인도함’, ‘삶의 기준과 선택’이라는 4개의 주제 모음을 포함한다. 첫 번째 범주와 관련된 찬양 곡으로는 ‘참여자 3’가 언급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라는 곡으로, 청소년 사역 중에 “나는 누

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 기도회 찬양으로 부른 곡이다. 참여자와 학생들 모두 찬양에 감동이 되어 1시간 가까이 울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고,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Table 2. List of topics, collection of topics, and categories

| 주제  | 주제 모음      | 범주           |
|---|------------|--------------|
| 부정적 감정을 몰아냄<br>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얻음                      | 치유와 긍정성 회복 | 성도로서의 정체성 인식 |
| 나의 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br>말하게 하고 부르게 함                    | 입의 복록      |              |
| 개인의 삶에서 만남<br>말씀 앞에 멈추게 함<br>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역할          | 하나님께서 인도함  |              |
| 물음에 답을 줌<br>선택의 우선순위<br>회상적 찬양                      | 삶의 기준과 선택  | 목회자의 사명감 고취  |
| 본이 되어야 하는 부담감<br>가치관 세워주기<br>찬양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 목회자의 역할    |              |
| 목회자 개인 목상 찬양<br>찬양 인도자가 받는 은혜<br>예배자로서의 준비          | 예배자로서의 목회자 |              |
| 말씀과 연계된 찬양연구<br>어려운 신학 개념을 단순화시킴<br>이달의 주제찬양에 대한 설교 | 말씀 전달자     | 예배 의식의 각성    |
| 찬양이 곧 예배<br>마음을 두드림<br>예배하는 기쁨을 회복                  | 예배의 본질     |              |
| 말씀 자체로 만든 찬양<br>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찬양<br>설교를 듣고 결단을 이끔  | 말씀의 감화력    |              |
| 노래로 하는 기도<br>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줌                         | 풍성한 기도     | 공동체성의 강화     |
| 전 세대가 공감<br>세대를 아우르는 찬송가                            | 일체감 형성     |              |
| 쉽고 단순한 찬양<br>세대별 선호하는 음악 장르 활용                      | 연대감 확인     |              |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주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소진영 작사/작곡-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 1) 치유와 긍정성 회복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라는 말씀처럼, 참여자들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소멸하고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며, 육체의 질병이나 어려움 등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얻는다고 했다.

예민해지고 짜증이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감사 찬양을 한참 틀어 놓은 적이 있는데,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참여자 5)

요즘, 아이도 아내도 몸이 많이 안 좋고, 제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이 바로 찾아오는 것을 느껴요. (참여자 2)

### 2) 입의 복록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라는 구절이 있다. 찬양은 내 입술로 불렀을 때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은혜가 되어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참여자들도 듣기만 하는 찬양보다는 찬양 가사를 직접 입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직접 불렀을 때 그 찬양 가사가 자기 고백이 되어 더 큰 은혜가 된다고 했다.

찬양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찬양의 가사가 자기의 인식 속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6)

나의 삶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6)

### 3) 하나님께로 인도함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성인이 되어서 생각나기도 하고,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의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훗날 다시 교회로 나아오게 되기도 한다. 군대에서 불렀던 ‘실로암’, ‘야곱의 축복’은 제대 후에도 흥얼거리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도 있다. 또한, 개인의 삶 가운데 만난 어떠한 찬양들을 통해서 나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기도 한다.

12년 전, 초등부 아이들에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말씀을 전하면서 어린이 찬양 중 ‘깨끗한 그릇’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가사가 “반짝이지 않아도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해요.”라는 내용인데, 그때 한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 전해 들은 이야기로, ‘반짝이지 않아도’라는 찬양 때문에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참여자 3)

이 찬양은 저를 치유한 곡이라고 할까요, 사역에 꿈을 꾸고 내 목회 방향을 세우는 시기에 “A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라는 음성으로 다가오면서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있게 만든 곡이었어요. (참여자 1)

### 4) 삶의 기준과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선택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정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졌는지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답을 찾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나 비종교적 행위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그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통해 답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찬양 가사들은 대부분 고백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에게 있을 때 답을 주기도 한다.

찬양 가사는 이야기처럼 풀어서 쓰이기보다는 “하라, 하지 마라, 나가라, 말아라, 뛰어라, 멈춰라.”처럼 간단한 명령어로 쓰인 경우가 많아 찬양을 통해서 답을 듣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찬양이 답으로 이루어지는 고백과 답이죠. (참여자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 때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행위 중에 찬양하는 것을 선택해요.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이미 좋은 선택을 한 거로 생각해요. (참여자 5)

## 2. 목회자의 사명감 고취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 소명이나 사명감 없이 목회한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소명과 사명감이 사그라들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찬양이 목회자의 사명감을 회복하고 고취 시킨다고 했다. 이 범주는 ‘목회적 사역’, ‘예배자로서 받는 은혜’, ‘말씀 전달자’라는 3개의 주제 모음을 포함한다. 관련된 찬양곡으로는 ‘참여자 1’가 언급한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라는 곡이다. 이 곡은 ‘참여자 1’가 교회 개척 초기에 알게 된 곡으로 가사 중에서 “이제 말은 멈추고, 꿈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부분이 마음 깊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신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목회 방향성과 사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된 곡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내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대네.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너와 나의 이야기가 맞물린 또 다른 이야기.

시간의 틈니바귀가 찢어내는 웃지 못할 이야기. 그러니 이제 날 내버려 두어라.

난 그것을 알 재간이 없으니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염평안 작사/작곡-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

### 1)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의 사역은 보통 예배 준비, 설교, 찬양, 부서, 심방, 행정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담당하게 된다. 각각의 사역은 특징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목회자는 사역에 따라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은 찬양을 접할 때 신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해요. 신앙의 깊이를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서기 위해 매일 말씀과 찬양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데 그때 선택하는 찬양은 목회자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찬양을 통해서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의 자존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줬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사역이지 않겠냐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여자 3)

저는 찬양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찬양의 초점 같은 부분에서 변질된 찬양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양의 의도와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찬양 사역하는 동료 목사님과 찬양을 분석하는 유튜브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참여자 2)

## 2) 예배자로서의 목회자

참여자들은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이고 예배자다. 목회자들은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은혜를 설교나 찬양 인도할 때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때로는 찬양 인도를 위해 한 곡을 선정하는데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도 한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하고 나눈 찬양은 목회자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성도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목회자나 예배인도자가 찬양곡을 미리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서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준비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찬양 인도를 준비할 때도 함께 부를 찬양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고, 예배에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참여자 2)

## 3) 말씀 전달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 이때 말씀과 연계된 찬양 선곡은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고,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명료하고 단순한 삶의 언어로 단순화한다. 또한, 교회별로 올해의 찬양이나 이달의 주제찬양이 있다면 찬양곡이 만들어진 배경, 작곡가에 대한 이해, 성경적 해석 등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더 은혜가 될 것이다.

저는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 찬양의 가사로 들었을 때 훨씬 직접 다가오고, 그 가사에 얽어진 멜로디를 듣는 것이 힘든 학창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제가 생각하기에 찬양은 복잡한 신앙 언어를 단순화시키고 우리 삶에 맞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양이 정말 좋고 찬양이 신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의 중요도와 무게감이 같다고 생각해요. 설교는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주 명료하고 단순한 삶의 신앙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6)

이달의 주제찬양이 있다면 온 교회 성도가 이 찬양을 듣고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그 찬양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뜻과 곡이 해석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4)

### 3. 예배 의식의 각성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시 66:4)”.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으로서,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의식적 각성이 요구된다. 찬양은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한다. 찬양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되게 하고, 말씀의 감화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 범주는 ‘예배의 본질’, ‘말씀의 감화력’, ‘풍성한 기도’라는 3개의 주제 모음을 포함한다.

#### 1)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배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거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회중을 고려한 찬양은 마음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며,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한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으며 찬양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

찬양은 마음을 두드리는 힘이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뭔가 두꺼워진 것들을 허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는 친구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데, 아이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율동하는 모습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그 상의 의미도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5)

어떠한 일을 겪은 후 찬양 부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방송실 자막 사역을 1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다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 2) 말씀의 감화력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왕하 3:15)” 이 말씀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성경의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은 힘이 있으며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며,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과 이어지는 찬양은 결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경우, 예배 사역 중에서 경배와 찬양도 중요하지만, 설교 말씀 이후에 하는 결단 찬양 시간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다짐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을 꼭 갖고 있어요. (참여자 6)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은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한 진짜 준비 작업이고, 설교 후 결단 찬양은 말씀이 심어지고 나면 그 말씀이 또 잘 자라도록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중요하게 생각해요. (참여자 3)

저는 말씀 찬양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한 찬양이나 성경 내용 그대로의 찬양은 하

나님 말씀 그대로니까 정말 힘이 있어요. (참여자 5)

### 3) 풍성한 기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한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를 때 찬양을 부르면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더욱 풍성해진다. 이때 찬양은 간증이나 고백의 내용이 담긴 찬양이 조금 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찬양의 음률도 중요한 부분으로 가사와 음률이 잘 맞을 때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찬양 시간에 목소리를 낸 아이들은 기도 시간에도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는 짧고 단순한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른 후, 어떻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참여자 3)

저는 ‘주여’를 외치고 부르짖기 전에 설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곡을 선곡해서 말씀 끝날 때 항상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참여자 3)

찬양은 말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인식 속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의 내용들이 기도를 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기능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6)

## 4. 공동체성의 강화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다. 세대별로 서로 다른 아이들은 있지만, 가족이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성이 있다. 찬양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회복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 범주는 ‘일체감 형성’, ‘연대감 확인’이라는 2개의 주제 모음을 포함한다. 관련된 찬양곡은 ‘참여자 2’가 언급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곡으로,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함께 부르기에 좋은 고백의 찬양이라고 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은 새 찬송가에 수록되기 전부터도 정말 좋은 찬양인데, 어르신들이 불러도, 젊은 사람들이 불러도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에 좋은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 1) 일체감 형성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공감이가 중요한 부분이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찬양곡을 함께 부르는 행위를 통해, 그리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찬송가를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코드를 편곡하여 함께 부를 때 세대 간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요즘은 공감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도 마찬가지로 너무 젊은 층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 찬양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2)

어떤 찬양이 나한테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찬양하기보다는 회중의 연령대, 선호하는 음악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 2) 연대감 확인

찬양은 세대와 세대 그리고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복적인 리듬 패턴, 순차진행의 선율이 적용되어 쉽고 단순한 구조의 찬양은 믿음이 없는 신자나 새로운 신자에게도 거부감 없이 예배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세대별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를 활용했을 때, 공감되는 가사가 있는 찬양을 통해서 연대감을 느끼고 예배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며 찬양과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같은 경우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 찬양을 많이 좋아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부르기 쉬워서 목청을 높여서 부르기도 해요. (참여자 2)

청소년부 수련회 때 축복송으로 자이언트의 '노메이크업'을 불렀어요. 가사의 내용이 "너희들은 화장 안 해도 이쁘다"인데 그때부터 학생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고 더 깊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참여자 6)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목회자가 개인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 찬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찬양은 목회자 개인의 삶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목회자로서 직업적 사명감을 고취 시키고,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풍성하게 하여 예식을 돕는 역할을 하고, 세대 간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강화한다는 4가지 범주도 도출되었다. 이로써 찬양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과 예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관계적 측면에서 개인의 내적, 외적, 영적인 영역,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찬양은 성도와 목회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 치유적이고 회복적인 가치를 갖는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가사가 되어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영적인 힘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김도수, 2014).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결과에 따르면, 찬양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목회에 대한 사명이 흔들리거나 소진되었을 때,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부정적인 감정이 소멸하고,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며, 육체의 질병이나 어려움 등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겨낼 힘과 회복할 소망을 얻는다고 했다. 또한, 찬양은 마음을 두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고 했다. 양정식(2017)은 찬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성도의 부르심의 소명 의식과 순종을 일깨워 주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하였으며, 오진아(2011)는 영, 혼, 육,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재 된 찬양은 인간의 모든 영역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과 치유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한나(2021)의 연구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심리적 불안, 염려, 고독의 문제들이 긍정적 감정들로 대체되고, 신체적 질병의 회복과 함께 새 힘을 얻었다는 경험을 보고한 것과 함께 본 연구의 결과가 뒷받침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과 인식 중 하나는 성경 말씀에 기반한 곡의 활용적 가치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 찬양이나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가사로 한 곡들은 모두 신뢰할 만한 영적 가치가 있으며 깊고 풍성한 진리들이 담겨 있다. 참여자들은 찬송가(한국찬송가공회 저)에는 작사/작곡가의 의도와 영성이 노래 안에 분명히 드러나 예배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찬송가 사용이 필수적이며, 세대별로 선호하는 장르의 복음성가가 있지만, 찬송가의 능력과 가사의 고백을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희봉(2017)은 새롭게 발견하고 묵상해볼 만한 풍성하고 소중한 진리들이 찬송가에 가득 담겨 있고, 현대의 많은 경배 음악(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보다 찬송가에서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건강한 교회음악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는 성경의 시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찬송이자,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했던 시편

찬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보급하여 바르고 균형 있는 예배 찬양의 발전에 관해서 주장하였다. 이는 양정식(2010)의 연구에서 먼저 제기된 내용으로, 설교 전과 후에 해당 주제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진 찬송가 선곡은 예배의 통일성을 지키고 성도의 깨달음과 결단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양이 예배 안에서 풍성해지면 성도의 삶 속에서도 더욱 풍성해져 삶과 예배가 연대함에 따라 통합된 크리스천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최근 음악 시장의 음원 제작 및 보급의 발전으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찬양곡들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겠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근 초점이 변질된 찬양들이 많이 보급되는 것을 걱정하였고, 찬양의 의도가 신학적으로 그릇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이는 박희봉(2017)이 치유를 위한 CCM 찬양 선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젊은 세대가 선호한다고 해서 무조건 CCM만 활용하다 보면 성경적이지 않거나 복음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음악이 예배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찬양을 선곡할 때 예배 신학적 타당성, 치유를 위한 찬양 가사의 건전성, 하나님 본성과의 부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목회자로서 늘 본이 되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일주일에 많으면 열 번 정도의 찬양 예배를 인도해야 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직업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목회자는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2중, 3중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김준수, 2007). 목회자로서 소명을 갖고 사역은 하고 있지만, 인간이기에 때로는 반복되는 사역에 매너리즘을 느끼기도 하고, 목회에 대한 고민,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선택 등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인 소명 의식은 목회자에게 직무 가치, 직무수행, 직무 만족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박진우, 2018), 소명을 재확인하고 회복하는 과정은 소진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오태균, 2009). 목회자들은 처음 목회에 대한 콜링을 받았을 때나, 소명에 관해 재확인할 때, 목회 방향성을 놓고 고민했을 때 마다 찬양을 통해서 답을 얻거나, 목회 방향성을 확인하고 소명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선행연구는 주로 목회자 사모와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이나 역기능의 회복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목회자 대상 인식연구와 문헌 고찰 연구 외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역기능 또는 돌봄이나 회복을 직접 다루는 논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목회 사역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고, 돌봄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익숙한 대상임을 고려해본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목회자를 대상으로 소진 해소 및 소명감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목회자의 소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따라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 돌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들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찬양에 관한 목회자의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찬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문헌 고찰 연구(곽희중, 2021 ; 김은희, 2021 ; 김도수, 2014 ; 임동일, 2009 ; 안성섭, 2003)인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찬양 사역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생생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여 그 의미를 분석 절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선행된 문헌 연구들에 대해 경험적 사실로 보완해 준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이 인터뷰 중에 표현한 찬양곡들이 오래된 찬송가와 복음성가들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안에 발표된 곡이나 세대별로 성도들이 선호하고 공감하는 찬양곡들을 통해서 현대 찬양의 흐름과 방향성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목회자 관점에서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 찬양의 기능적 측면과 활용에 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찬양곡을 왜 분별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관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목회자들이 담당하는 많은 사역 중에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닌 찬양은 예배, 기도, 말씀, 공동체 등 사역 전반에 빠지지 않을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찬양이 목회 사역 내에서, 개인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찬양에 관한 교육과 분별력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찬양을 활용한 영적 돌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

목회자가 경험한 찬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수적인 제한으로 목회자의 찬양에 관한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목회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찬양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기에, 찬양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영적 돌봄의 풍성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찬양의 경험과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며, 성경적이고 건강한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해지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성장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곽희중 (2021). **음악목회의 성경적 원리와 실천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Kwak, H. S. (2021). *A Study on the Biblical Principle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usic ministry*.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권정희 (2008). **현대교회음악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 경향 치유를 위한 가사변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Kwon, J. H. (2008). *Contemporary Church Music's Affect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 김광열 역. (2000).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회복을 위한 개혁신학의 원리**. John, M. F. (1996).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Kim, K. Y. (2000). *Worship in spirit and truth*. Seoul: Chongshin University Publisher. Trans. John, M. F. (1996). *Worship in spirit and truth*. North America: Presbyterian & Reformed.]
- 김경진 (2013). **한국 실천신학 : 제12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Kim, K. J. (2013). *Practical theology of Korea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the 12th PCTS 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김도수 (2014). 현대 한국교회 찬양에 대한 개념강의 문제와 오용의 문제 및 제언. **신학과 실천**, 38, 171-198.
- [Kim, D. S. (2014). The Problems of the Concept and the Misapplication dealing with 'Praise' as well as Some Suggestions for Current Churches in Korea. *Theology and Praxis*, 38, 171-198.]
- 김보경 (2016). 유대인 하브루타 학습의 이해와 정착을 위한 과제. **신앙과 학문**, 21(1), 81-118.
- [Kim, B. K. (2016). Understanding and Prerequisites of Jewish Havruta Learning. *Faith & Scholarship*, 21(1), 81-115.]
- 김은희 (2021). 한국 신학교육에서 찬송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예배인도자로서 목회자 후보생 찬송 교육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97, 143-166.
- [Kim, E. H. (2021).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Hymns Education in Korean Theological Schools: Focusing on Hymns Education for Pastoral Candidates as Worship Leaders. *Bible and theology*, 97, 143-166.]
- 김준범 (2004). **시편찬송**. 서울: 고려서원.
- [Kim, J. B. (2004). *The Korean psalter*. Seoul: Goryeo Seowon.]



- 김준수 (2007).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 **복음과 상담**, 8(8), 33-58.
- [Kim, J. S. (2007). Clergy's Stress & Burnout.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8(8), 33-58.]
- 김태임·권윤정·김미중 (2012).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도시거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2), 85-97.
- [Kim, T. I., Kwon, Y. J. & Kim, M. J. (2012).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8(2), 85-97.]
- 나운영·조희수 역. (1990). **교회음악입문**. Wilson, J. F. (1965). *An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Na, W. Y. & Cho, E. S. (1990). *An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of Korea. Trans. Wilson, J. F. (1965). *An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Chicago: Moody Press.]
- 류호영 (2016). 목회자의 소명/사명에 대한 성경-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49, 185-217.
- [Ryou, H. Y. (2016).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Pastoral Calling in the Light of the New Testament Fulfillment. *Theology and praxis*, 49, 185-217.]
- 박진우 (2018). 목회자의 소명경험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9, 217-245.
- [Park, J. W. (2018). The study of pastor's calling experience. *Theology and Praxis*, 59, 217-245.]
- 박희봉 (2017). 개혁주의생명신학적 목회를 위한 교회음악 활성화 방안. **생명과 말씀**, 19, 11-41.
- [Park, H. B. (2017). A Study on the Healing Effect of the Church Music with Respect to the Reformed Life Theology as a Test Case of SaRang Church. *Life and Word*, 19, 11-41.]
- 심정연 (2020). 온라인 게임 과다 사용자의 실존적 공허감 치료를 위한 기독교 상담적 연구: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5(2), 5-28.
- [Shim, J. Y. (2020). A Study of Christian Counseling Study for Intervening Existential Emptiness of On-line Game Overusers: based on V. Frankl's Logotherapy. *Faith & Scholarship*, 25(2), 5-28.]
- 안성섭 (2003). **교회와 치유음악목회: 찬양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 [Ahn, S. S. (2003). *Church and Healing Music Society: A Study on the Healing Function of Praise*. Masters Dissertation. Hupsung University, Gyeonggi, Korea.]
- 양정식 (2010). 현대 찬양경배예배의 이해와 개선점-예배찬양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2), 319-354.
- [Yang, J. S. (2010). A Study on the Contemporary Praise and Worship : Understanding and Analysis Base on Its Functions and Roles in Today's Worship. *Theology and Praxis*, (22),

319-354.]

- 양정식 (2017). 예배음악의 성서적 기원연구: 교회음악인가, 기독교 음악인가. **신학과 선교**, 50, 119-161.  
[Yang, J. S. (2017). A Study of Liturgical Music from Biblical Origin: Church Music? or Christian Music?. *Theology and Mission*, 50, 119-161.]
- 오진아 (2011). **교회음악이 전인치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Oh, J. A. (2011). *The Influence of Church Music on the holistic healing*.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오탈균 (2009). 목회자의 탈진에 대한 교회 교육학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22, 293-325.  
[Oh, T. G. (2009). Christian Educational Task for Overcoming the Burnout of Korean Pastors.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22, 293-325.]
- 우형천 (2004). **찬양을 통한 내적치유**.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Woo, H. C. (2004). *Internal Healing Through Praise*. Masters Dissertation.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Gwangju, Korea.]
- 유명복 (2016). 음악의 치유기능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49, 141-165.  
[Yoo, M. B. (2016). A Study on the Function of Music as Healing.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9, 141-165.]
- 이상일 (2016). 루터의 음악신학과 예배에서의 음악사용. **장신논단**, 48(4), 91-118.  
[Lee, S. I. (2016). Luther's Theology of Music and His Use of Music in Worship.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8(4), 91-118.]
- 이중태 (1989). **예배와 교회음악**. 예찬사.  
[Lee, J. T. (1989). *worship and church music*, Seoul: Yechan publishing.]
- 이한나 (2021). **기독교 국악전공자의 국악 찬양을 통한 치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Lee, H. N. (2021). *Inquiry on Healing Experiences of Female Christian Musicians in Praising in Traditional Korean Music*. Doctoral Dissertation. Pyeongtaek University, Pyeongtaek, Korea.]
- 임동일 (2009). **교회음악에서 음악치료의 적용에 관한 치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외국어대학교.  
[Lim, D. I. (2009). *Research On Healing Over Musical Healing in Church Music*. Masters Dissertation. Kyongb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yongbuk, Korea.]
- 정은주 (2004). **찬양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예배사역자의 태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Jeong, E. J. (2004). *Attitudes of worship ministers to the healing functions of praise*. Masters

-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주영 (2020). **성경적 근거에 따른 음악의 기능 분석: 구약성경에서 언급된 음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Jeong, J. Y. (2020). *An analysis of musical function based on biblical basis : Centering on the music in the Old Testament*.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21).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4판)**. Creswell, J. W. & Poth, C. N. (2021).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th ed.)*. 서울: 학지사.
- [Cho, H. S., Jeong, S. W., Kim, J. S. & Kwon, J. S. (2021).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th ed.)*.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th ed.)*. Los Angeles : SAGE.]
- 주종훈 (2022). 오늘날 예배 갱신에서 음악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유형들 고찰. **신학과 실천**, 79, 89-112.
- [Joo, J. H. (2022). Reflection on the Paradigms of Music in the Contemporary Worship Renewal. *Theology and praxis*, 79, 89-112.]
- 주지은 (2013). 치유음악목회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1), 311-327.
- [Ju, J. E. (2013). A Study on Change of Pastors' Cognition about Healing Music Ministry.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88(1), 311-327.]
- 하재송 (2015). 교회음악의 교육적 기능과 찬송가 교육의 필요성. **성경과 신학**, 75, 379-405.
- [Ha, J. S. (2015). Educational Functions of Church Music and the Necessity of Teaching Hymns. *Bible and theology*, 75, 379-405.]
- Alude, C. O. & Ekewenu, D. B. (2009). Healing through music and dance in the Bible: Its scope, competence and implications for the Nigerian music healers. *Ehno-Med*, 3(2), 159-163.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55-176.
- Hustad, D. P. (1993). *Jubilate II: Church music in worship and renewal*. Hope Publishing Company.
- Johansson, C. M. (1992). *Discipling Music Ministry: Twenty-first Century Directions*.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Meremi, A. E. (1997). Traditional African concept of sound/motion: Its implication for and application in music therapy. *British Journal of Music Therapy*, 11, 66-72.

Olaniyan, Y. (2013). Music as a facilitator for healing. *African Journal Online*, 21(13), 94-101.

Omery, A. (1993). Phenomenology :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d Nursing Science*, 5, 49-63.

# 목회자가 경험한 찬양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raise Which Pastors Have Experienced

이미아 (명지대학교)

조희연 (명지대학교)

문소영 (명지대학교)

### 초록논문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음악으로 영적인 힘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찬양에 관한 목회자의 경험은 어떠한가 그 의미는 어떠한가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작하였고 찬양 사역의 경험이 있는 목회자 6인을 연구 참여자로 목적 표집하여 일대일 심층 면담 및 추가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31개의 주제와 12개의 주제 모음, 4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4개의 범주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인식', '목회자의 사명감 고취', '예배의 각성', '공동체성의 강화'이다. 논의를 통해 찬양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과 예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탐구할 수 있었으며, 개인 내적, 외적, 영적인 영역,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목회자들의 찬양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찬양의 가치에 관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성도들이 선호하고 공감하는 찬양곡들을 예배와 개인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목회자, 찬양, 찬송, 콜레이지, 현상학적 연구